

(사)전국
대리기사협회
www.weddrivers.net 1666-5634



대리기사와 지방자치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지역정부의 정책

[논평] 대리기사와 지방정부

- 근로대중 위한 지방분권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바란다



▲ 2018년 3월29일 경기도 주최로 대리기사 등 중장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18년 6월 `전국 지방자치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 민주주의 확장과 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대리기사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도 중요한 장치이다.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들의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방 분권 조직은 중앙정부 조직보다 더욱 접근성이 좋고 구체적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은 그 장미빛 미래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축소, 생산수단의 소수 집중현상의 극대화등으로 인해 자칫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수준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우려적인 전망이다. 우리 사회 대표적 IT기업인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이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은 이와 관련,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자칫 그 사회 취약계층의 희생과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우리 대리기사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로 자율성 및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권력과 지방의 분권화가 그 주요 동력이라 지적하고 있다.

고졸의 수수료, 제어장치 없는 업자들의 무한적 수탈, 배차제한이니 숙제니 일방적 업무차단이 횡행하는 대리운전시장은 이미 우리 사회 대표적인 불량시장이 되어있다. 이러한 부당현실을 해소하고 공정시장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권익활동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대리기사의 근무환경과 수입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제정되고 집행되어 공정시장의 시스템과 풍토가 조성되어야겠지만, 본 협회의 법인이 원혜영의원의 배려로 입법발의된지 적잖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통과는 무망하기 짝이 없다.

반면 하루하루 당장에 죽어나가는 대리기사들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겹기만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당국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표준요금제 제정 등의 현실적 조치들이 절실한 이유이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현장지원책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라도 이번 지자체 선거는 우리 대리기사들의 처지 및 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하기만 하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지역정부의 역할을 고대한다.

- 1) 공정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 대리운전법 입법 표준 요금제와 표준약관 제정 지원/착한대리인증제 등 합리적 업체 발굴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기사단체간 안정적 교섭체계 지원
- 2)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대리기사 쉼터 운영/공영대리운전시스템의 시범적 운영
- 3) 양질의 일자리 지원정책 :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실태조사와 인제폴 운영 및 현장과 일자리 잇는 시스템 정착

우리는 병렬적으로 나열된 위 사업들이 각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라도 알차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건전한 지역정부들이 들어서길 고대한다. 복지니 민주주의니, 그럴듯한 이미지 조적이 행행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리기사를 비롯 서민대중의 진정한 벗이 누가 될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시기이다.

2018.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본 자료는 2018. 3. 29일, 경기도 주최,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발전소 -중장년 일자리정책' 중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발제 및 토론내용들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백준봉박사의 '중장년층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1. 역사: 시장의 형성과 성장

- 1981년 경찰청의 음주운전 측정기 도입, 시장 형성
 - 고급 식당과 술집의 고객귀가 서비스 실시, 수요와 수익증대로 중계업체들 출현
 - 전화, 무전기, pda 등의 업무수단을 거쳐 스마트폰의 플랫폼 시스템으로 진화
 - 급격한 요금인하와 함께 시장의 폭발적 증대 및 광역화, 오더와 기사 공유화
- 

2-1. 기본통계

음주운전 방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정착

- 연매출 약 2-3조원, 수천여개의 업체, 20-30만명의 종사자, 연간 이용1억건 이상 (추정)
 - 사회적 기여: 국내 자료 전무.
 - 중국의 경우, 2016년 대리운전 이용량 2억 5300만건, 음주운전 원인 교통사고 발생률 350만건 감소, 462억위안의 재산손실 방지 (중국 칭화대 국제법연구센터 '대리운전업 발전백서' 중)
-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피해 6만8천건, 사망자 1,656명, 부상자 12만75명)

2-2. 대리운전업계의 현실



- 관련 법과 제도, 행정력 전무한 무법상태
 - 무한경쟁, 무한 갑질이 만연한 불법지대
 - 콜중개 프로그램업체인 로지소프트(바나플)가 시장 장악하고 산하에 업체연합 형성
 - 고율의 수수료(수도권 20%, 지방 약 25-30%)
 - 대리보험료 착복, 이중보험, 관리비, 출근비, 프로그램쪼개팔기, 카카오의 갑질동맹
 - 무도한 배차제한, 권익활동가에 대한 보복
 - 심야이동수단 전무, 불안 속에 불법순환차량 이용
- * 바로가기 -> <https://youtu.be/DU9yz9NoqdY>

3. 시장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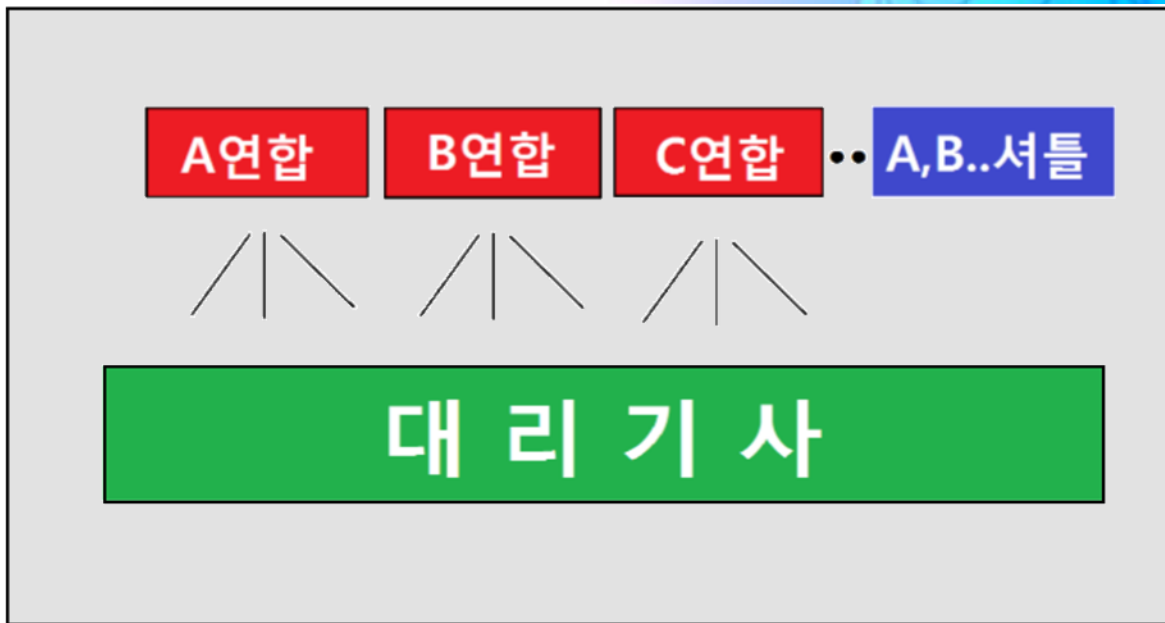
(1)수도권

오더중개업체인 로지소프트(바나플) 산하에 콜센터(대리업체)들이 연합체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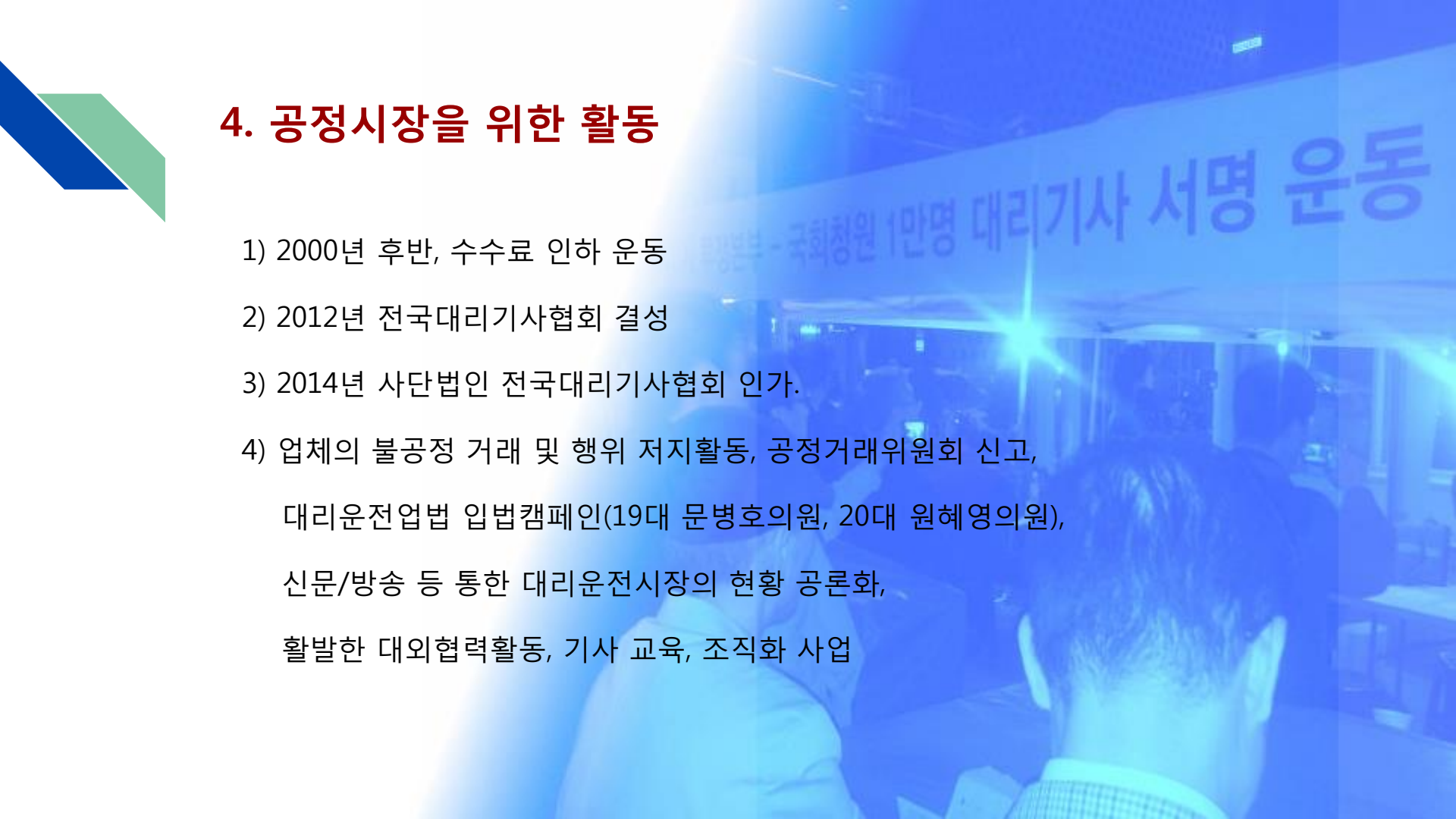
2) 지방

몇몇 지역 콜센터연합체들의 과점적 지배구조





4. 공정시장을 위한 활동

- 1) 2000년 후반, 수수료 인하 운동
 - 2) 2012년 전국대리기사협회 결성
 - 3) 2014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인가.
 - 4) 업체의 불공정 거래 및 행위 저지활동,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운전업법 입법캠페인(19대 문병호의원, 20대 원혜영의원),
신문/방송 등 통한 대리운전시장의 현황 공론화,
활발한 대외협력활동, 기사 교육, 조직화 사업
- 

[동영상]대리운전:공정시장을 향한 길



바로가기 -> <https://youtu.be/DU9yz9NoqdY>

[공공신문] 전국대리기사협회·오비맥주,
'음주운전방지' 캠페인

5. 카카오대리운전에 대하여

[시장 진입 과정]

- 1) 시장진입 초기 '공정한 대리운전 시장 형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환영
- 2)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지원 등 통해 시장 진입 가능





[카카오대리운전- 시장의 병폐에 편승한 또다른 불량업자]

- 3) 20%수수료, 대리기사 무한모집, 우선배차제 강행 등
- 4) 로지소프트(바나플) 등 기존 프로그램사의 이득 강화라는 역효과 초래
- 5) 더욱 격화된 무한경쟁으로 인해 대리기사들의 피해 극대화



6. 대책과 대안은 있는가

1) 중장기적 과제: 법 제도 신설 등 제도 기반 강화

- 대리운전업법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시장의 합리적 정비와 공정 시스템 정착
(현 20대 국회 원혜영법안 발의 중)

2) 당면대책: 시장 공정성 확보 및 처우 개선

- 표준약관/표준 요금제 등의 제정을 통해 시장의 기본 질서 및 기준 설정해야

3)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 지방정부 등 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태

대리기사

업소비·벌금 철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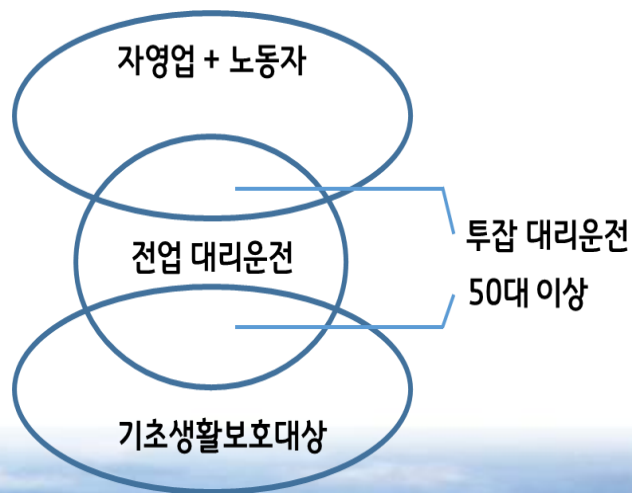
전국대리기사협회

www.weddrivers.net

7. 경기도 등 지역 정부의 지원 및 대책에 대해

1) 대리운전업계 지원 체계 정립

- 대리운전법 입법, 표준요금제와 표준약관 제정 지원
- '착한 대리 인증제' 등 합리적 업체 발굴 프로그램 운영
- 대리운전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업체와 대리기사단체간 교섭체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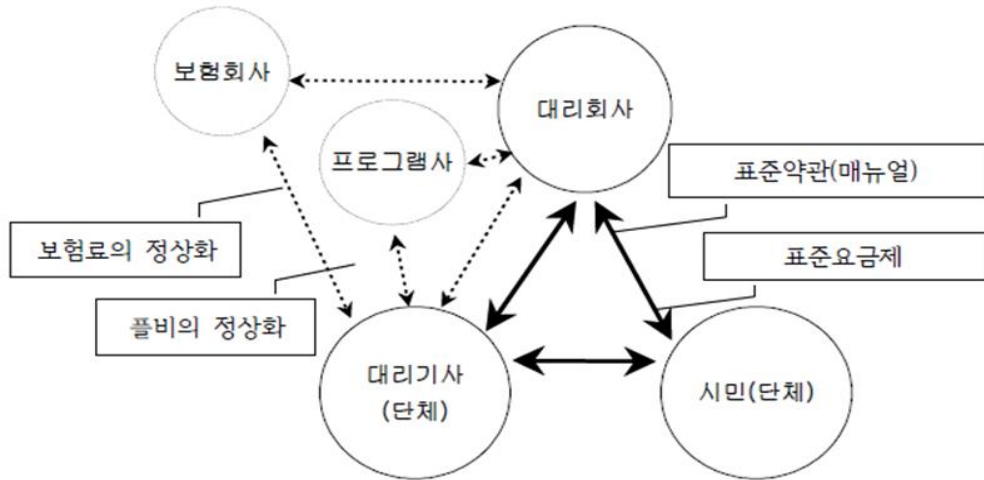
2)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
예: 심야대리셔틀버스 운행(거점 형태로 지원), 광역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연장 등
- 대리기사 쉼터: 계절 및 근무특성 고려한 쉼터 공간 조성
- 경기도 차원에서 '공영대리사업'의 시범적 시행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일자리 창출 (중장년 일자리 창출)- 기사 처우개선-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적정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업체 반발(시장경제 침해)- 투입 비용 검증에 대한 부담- 예산낭비 가능성 높음- 직접 사업 수행 및 운전자 관리 어려움

3) 양질의 일자리 지원 정책

- (1)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2) 의전기사, 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 전문강사 및 운영진 양성
 - (3) 실태조사 및 인재풀 운영, 현장과 일자리를 잇는 시스템 정착
- 공정시장 정착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성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전국”
대리기사협회

www.weddrivers.net 1666-5634



전국대리기사협회



www.weddrivers.net

Tel. 1666-5634

(사)전국”
대리기사협회